

반전의 '5월'

강정호, 160km 체프먼 공 받아쳐 2루타 등 2안타
공수주 맹활약 타율 0.289로 상승...5월 들어 펄펄



추신수

미국프로야구(MLB)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멀티 히트(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에 성공했다.

강정호는 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 경기에서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4타석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피츠버그 타선이 전반적으로 침묵해 타점,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65에서 0.289(38타수 11안타)로 높아졌다. 피츠버그는 0-3으로 패해 5연패에 빠졌다.

강정호는 2회 말 2사 첫 타석에서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 마이크 리크의 두번째 공을 받아쳐 3루 방향으로 행운의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다.

3루수는 땅볼 타구를 잡아내지 못했고, 강정호는 전력 질주 끝에 무사히 1루를 밟는 데 성공했다. 이날 경기 피츠버그의 첫 안타였다.

5회 말에는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번째 투구를 때렸고, 유격수가 땅볼 타구를 잡아 너무 높게 송구하는 실책을 범해 무사히 1루를 밟았다.

7회 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4구를 쳤지만 3루수 파울플레이로 아웃됐다. 9회 말에는 풀카운트에서 신시내티의 강속구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의 상대로 좌전 2루타를 성공시켰다.

체프먼은 강정호가 바리크의 기라성같은 투수를 가운데 '한번 붙어보고 싶은 투수'로 지목했던 투수다.

강정호는 수비에서도 포구와 송구 등에서 조금의 실수도 없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신시내티는 4, 5회 잇따른 안타와 1개의 솔로홈런으로 3점을 뽑아냈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 게릿 콜은 5이닝 동안 8개의 안타(1홈런)와 3점을 내주고 수비에서도 실수를 범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피츠버그는 이날 패배로 5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12승15패(승률 0.444)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4위다. /연합뉴스

추신수, 휴스턴전서 시즌 3호 홈런 4월 부진 딛고 6경기 연속 장타행진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3호 홈런포를 터트리며 최근 6경기 연속 장타 행진을 벌였다.

추신수는 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1번타자·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2-0으로 앞선 2회 좌월 2점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최근 3경기 연속 토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2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아 상대 선발인 오른손 투수 사무엘 데두노를 좌월 투런 홈런으로 두들겼다.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87마일(약 140km)의 직구가 바깥쪽으로 높게 들어오자 그대로 밀어쳐 펜스를 넘겼다.

추신수의 올 시즌 3호 홈런. 지난 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4-7로 뒤진 7회말 동점 3점 홈런을 터트린 이후 4경기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다. 추신수는 카일 블랭스, 이날 2홈런을 몰아친 카를로스 페게로와 함께 팀 내 홈런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2일 오클랜드전부터 전날까지 5경기 연속 2루타를 친 추신수는 이날 홈런으로 최근 6경기 연속 장타 행진도 계속했다. 추신수는 5월 들어 6경기에서 때린 안타를 홈런 2개와 2루타 5개 등 모두 장타로만 장식했다.

홈런은 쳤지만 삼진을 세 차례나 당하는 등 이날 5타수 1안타를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51에서 0.154(78타수 12안타)로 조금 올랐다. 전날 시즌 첫 연승의 기쁨을 맛본 텍사스는 홈런 세 방을 포함한 13안타를 몰아치고 휴스턴을 11-3으로 완파, 올해 처음으로 3연전 승리를 쓸어들었다. /연합뉴스



강정호

“반갑다, 안치홍”

무등경기장서 22·23일 KIA - 경찰청 퓨처스리그

무등경기장에서 '그리운 얼굴' 안치홍(경찰청)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2·23일 함평 헬린저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던 KIA 타이거즈와 경찰청 퓨처스리그 경기가 무등경기장으로 옮겨 치러진다.

헬린저스 필드에서는 함평군이 개최하는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경기가 열린다. KIA는 헬린저스필드가 위치한 함평의 지역 배려차원에서 이를 경기장을 양보하기로 했다.

덕분에 KIA 팬들은 안치홍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안치홍에게는 이번이 올 시즌 첫 친정팀 상대이자 첫 광주 나들이다. 같은 날 삼성과의 1군 홈경기도 열리는 만큼 프로야구와 안치홍을 보려는 팬들로 챔피언스필드와 무등경기장이 동시에 들썩이게 됐다.

KIA의 주전 2루수로 자리를 지켜왔던 안치홍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경찰

청에 입단하면서 잠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다. 유니폼은 달라졌지만 실력은 여전하다. 안치홍은 6일 경기까지 퓨처스리그 23경기에서 나와 78타수 33안타(3홈런), 0.423의 타율로 30타점을 쓸어들으며 경찰청의 간판 타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안치홍 외에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KIA 소속 선수는 박기철(투수), 한승택(포수), 홍재호(내야수), 이경록(외야수)이 있다.

한편 올 시즌 퓨처스리그는 남부리그(KIA 상무 삼성 롯데), 북부리그(경찰 LG kt 두산), 중부리그(한화 SK 화성 NC) 등 3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각 팀은 동인리그 팀 간 18차전(홈·원정 각 9경기), 인터리그 팀 간 6차전(홈·원정 각 3경기)씩 총 102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라인 롤러' 타고 꽃피는 동포애

광주시체육회, 고려인마을·다문화가족 초청 무료 강습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확대·운영 중인 수완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자녀와 다문화가족을 초청, 인라인롤러스케이팅 무료강습회를 열었다.

이날 강습은 임홍규 송우초 코치와 김문수 광주체육회 코치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이들은 인라인스케이팅 착용법, 기본자세, 걸기, 실전주행 등 현장체험 교육을 한 뒤 자유시간을 줘

윙겟 인라인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광주로 이주한 고려인마을 자녀들에게 인라인스케이팅 체험 기회를 제공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고려인마을 자녀들이 사전예약만 하면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해 스케이팅장에서나마 따뜻한 동포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체육회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U대회 남자 농구 사령탑

이민현 조선대 감독



이민현(56·사진) 조선대 농구 감독이 오는 7월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농구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됐다. 여자 농구 대표팀은 유인영(44) 감독대 감독이 맡는다.

대한농구협회는 최근 제1차 전체 이사회를 열어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할 남녀 대표팀을 구성했다. 광주U대회 남자 대표팀은 이민현 감독이 이끌게 됐으며, 김종규(LG)·이승현(오리온스)·김준일(삼성) 등 프로 선수 6명과 최근 미국프로농구(NBA)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현(고려대) 등이 선발됐다. 이 감독은 도하 아시안 게임 남자 농구 대표팀 코치와 중국 선전 U대회 남자 농구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